

더 저렴하고 알차게... 불경기에 설 선물도 '실속형'



지역 백화점, 10만원 미만 실속형 세트 매출 2배 늘어 오래두고 먹을 수 있는 굴비·멸치·햄 전체 40% 차지 청과·수산·정육은 10%↓...유통업체 증저가 물량 확대

설 연휴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전통시장은 설 준비에 나선 소비자들이 모여들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명절을 앞두고 있어 유통업계의 분위기는 밝지 않다.

주요 매장들은 평소보다 고객들이 늘었지만 실제로 제품을 구입하는 이들은 예년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레도 지역 백화점들은 올 설 판매가 지난해 대비 5~10%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선물세트 본 판매 신장률이 광주신세계는 103%,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8%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부쩍 추워진 날씨와 기업수요, 증저가 상품들의 판매 호조가 그나마 설 경기를 뒷받침 해준 덕분이다. 특히 올 설 선물세트 패턴은 골 깊

은 불황으로 인해 고가보다는 증저가 선물세트 위주로 바뀌고 있으며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건어물이나 햄·냉동육 등 소위 '자린고비형' 선물세트가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임훈)가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2016 설 맞이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두 배 이상, 주문 건수는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신장세는 기업들이 불황으로 인해 전년 대비 상품권 구입이 줄고 선물세트 구입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품목별로 들여다 보면 굴비 및 멸치 세트 등 건어물 세트 매출이 40%를 차지하는 등 소위 오래두고 먹을 수 있는 '자린고비형' 선물세트의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신세계는 이번 선물세트 예약 판매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되는 경기불황을 감안해 증저가 선물

세트 물량을 전년대비 확대 했으며 10만원 미만의 선물세트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기 품목인 홍삼, 수삼 등의 건강 보조 기능식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해 불황에 따른 실속형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백상일 광주신세계 식품팀장은 "경기 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10만원 선의 실속형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사전예약 판매를 이용하는 고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세트 판매' 결과

매출이 전년대비 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품군별로 판매 실적을 분석해 보면 올 설에는 오래두고 먹을 수 있는 '자린고비형' 선물세트가 20% 이상 큰 폭으로 매출 신장세를 보이며 불황 속 인기 선물세트로 각광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선물세트는 '영광 자린고비 굴비세트'로 소금을 쳐서 바삭 말린 전통방식으로 일반 굴비보다 염도도 높고 수분함량은 낮아 상온에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다. 가공 선물세트도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역시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3~5만원대 증저가 상

품으로 불황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정육, 수삼, 청과 등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선물세트는 지난해 대비 10% 이상 감소해 경기불황을 대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양도원 식품팀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속 구매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올 설에는 자린고비형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도 올해는 본 판매에서 소폭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청과나 증저가 멸치세트 등 실속세트의 판매 호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설 선물 알뜰하게 고르세요" 올 설에는 장기보관이 용이한 굴비, 참치세트 등 소위 '자린고비형' 선물세트와 함께 건강세트가 각광받고 있다. 2일 (주)광주신세계 지하층 선물세트 코너에서 인삼공사의 '정관장' 직원이 면역력증진, 피로회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트렉스타, 유럽에 50억 수출계약

독일 해외바이어 글로벌 미팅 9개국 참석

한국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대표 권동철)가 지난 21일 독일 뮌헨에서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미팅에서 50억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미팅은 ISPO의 개최를 앞두고 슬로베니아, 스페인, 독일, 스위스, 일본, 캐나다, 미국, 스칸디나비아반도 등 전세계 9개국(반도)의 대표 해외바이어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번 글로벌 미팅에서 트렉스타는 유럽지역에 50억 규모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연초인 1월부터 지난해 12월 수출 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린 트렉스타는 2016년 수출규모의 대폭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트렉스타는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해외 디스트리뷰터들과의 직접 계약을 진행, 오로지 기술로 검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한 차별화된 해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스타마케팅과 다르게 차별화된 기술 및 품질 검증을 거친 브랜드만이 판매가 가능한 점에서 국내 영업과 다르다고 밝혔다.

트렉스타는 시즌별 주력상품을 선정하고 바이어들과 연 단위 계약 체결 및 판매 계약의 진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글로벌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독일 글로벌 미팅에서는 트레일와 메가웨이브 라인이 2017년 봄·여름시즌의 주력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아시아 아웃도어 브랜드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트렉스타는 현재는 ▲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 캐나다, 미국 등 북미 지역까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트렉스타 권동철 대표는 "트렉스타는 오로지 기술로 승부를 걸어온 회사로 창업시기부터 수출을 지향해온 기업"이라며, "이번 글로벌 미팅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는 행사이며, 올해는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트레일와 메가웨이브 라인을 차기 주력상품으로 결정해 주문량을 늘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금융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내년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금융 공공기관에 다른 공공기관보다 강도 높은 성과연봉제가 내년까지 전면 도입된다.

호봉제를 유지했거나 이렇듯 연봉제를 내걸었던 금융 공공기관들은 이를 폐지하고 거의 모든 직원에게 성과에 따라 차등화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9개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현재 간부직에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가 이번엔 발표한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도 이런 공운위 권고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우선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기존에 운영되던 호봉제는 모두 폐지키로 했다. /연합뉴스

쌀 변동직불금 설 명절 전 50% 우선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에 쌀 변동직불금의 절반을 우선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2015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단가

는 80kg당 1만5867원(ha당 99만921원)이다. 총 68만5000명(72만6000ha)에 쌀 변동직불금 7257억원을 지급한다. 변동직불금 1차 지급분(50%)은 오는 5

일까지 농업 각 시·군 지정사무소를 통해 국가별 계좌로 입금된다. 나머지는 3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수확기 쌀값 수준을 반영한 변동직불금은 통상 3월에 지급된다.

농가 자금 수요가 많은 설 직전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해 농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24.82 (+12.76)
- ↓ 금리 (국고채 3년) 1.53% (-0.04)
- ↑ 코스닥 685.55 (+2.75)
- ↑ 환율 (USD) 1200.50원 (+1.40)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대산프리모) 광

대산프리모가발